

iM FX Brief

달러-원, 추가 하락 재료 찾는 중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높아진 미 연준 금리동결 확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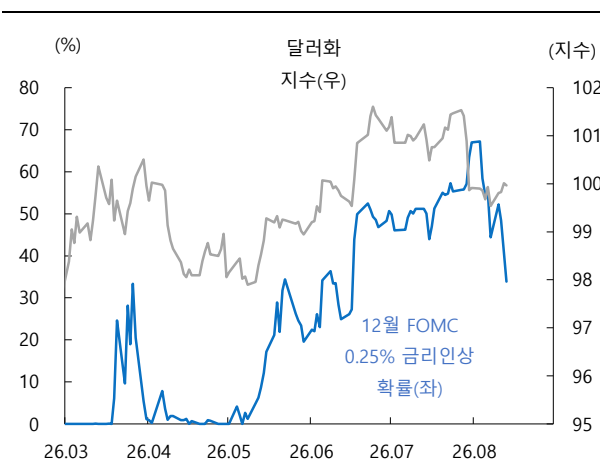
- 예상치에 부합한 7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로 9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 확률이 크게 낮아진 영향이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30년 국채 금리 등 불안한 장기 국채 금리 흐름으로 달러화는 강보합세를 보임
- 유로화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완화 여파로 완만한 강세 흐름을 이어감
- 달러-엔 환율은 추가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과 엔 약세 재개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159엔대에서 좁은 박스권 등락을 보임
- 위안화는 강보합세를 보인 달러 영향으로 보합세를 유지함
- 호주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필요할 경우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매파적 동결을 단행한 여파로 호주달러는 강세 흐름을 보임
- 달러-원 환율은 숨 고르기 장세를 보임. 그 동안 가파른 하락에 따른 경계감과 더불어 달러-엔 환율 반등 영향으로 전주대비 소폭 상승함

	8월 14일 종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99.7	0.13	1.37
유로-달러	1.157	0.10	-1.50
달러-엔	159.3	0.99	1.67
역외 달러-위안	6.74	0.03	-3.31
호주달러-달러	0.71	0.24	6.16
달러-원	1,415.5	0.43	-2.02

금주: 미국과 일본 장기 국채 금리 흐름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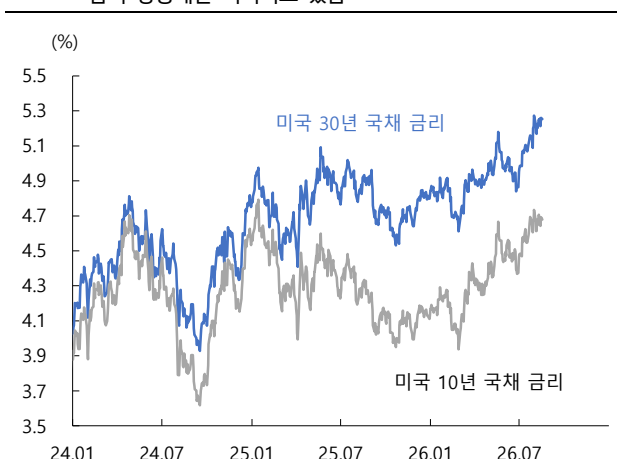
-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경제지표와 이벤트 부재로 숨 고르기 장세를 예상함. 다만, 미 연준의 금리인상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 흐름과 더불어 달러-엔 환율이 금주에도 주요국 환율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
- 달러-원 환율은 1,410원대를 중심으로 한 등락이 예상되지만 최근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반등하고 있어 또 다시 1,300원대 진입을 위한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
-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380~1,430원으로 예상함

그림1.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동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미 연준의 금리동결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지만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음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 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